



+ 알렐루야

벌써 성모 성월의 마지막 주일인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내려오신 큰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화를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영은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작정하며
 세례를 받는 그때부터 이미 내 안에 계셨습니다.
 다만 나의 이기적인 동기나 욕망들이,
 나의 내면의 근심, 걱정등 어두운 그림자가,
 나의 유혹에 쉽게 떨어지는 나약함들이
 성령의 활동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점점 작아지게 하고
 그분은 내 안에서 점점 커지게 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2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살아야겠습니다.
 비록 오늘은 부족하여 제자들처럼 숨어서 떨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 시켜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새로이 변화되어야 겠습니다.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을 거저 받고도
 아무 변화없이 살아 간다는 것은
 빛을 진채 갓을 생각도 않는 암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손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며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토마스

<http://home.comcast.net/~kimjiman/>

Long weekend 에 운전 조심하세요.

